문화광장



김 준 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

고 서 현

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

응급구조과 학생으로서 119구급대

체험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어루만

응급처치의 경우, 청력이 좋지 않

지 못하셔서 119대워의 눈 맞춤. 손

과적이었다. '나라면 단순한 평가

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적절

한 응급의료 제공과 병원 선정 및

이송을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'란

생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심

지는 손길의 존귀함을 체험했다.

바야흐로 대중의 상상력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는 '정치의 문화 흔히들 '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'라 도, '정치는 정치, 문화는 문화' 인 것으로 나뉘어 있다. 그런데, 문화 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력의 충돌로 이뤄졌다면, 후자는

2030의 신명으로 '새로 만날 세계'

것처럼 보인다. 이는 원천적으로 오류다. 근대사회의 정치적 장을 만든 힘의 원천은 민중혁명이기 때문이다.

동학혁명을 거치면서 조선의 민 중은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기 시 민중으로 거듭나며, 제국에서 민 국으로 전환했다. 해방 후 4·19와 화'시대를 맞이하고 있다. 기실 5·18, 6·10과 촛불을 거치면서 정 정치와 문화는 별개의 영역이다. 치권력을 재편해온 한국의 민중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마다 정치의 고 나누곤 하는 영역 간 구분에서 최전선에 서 있었다. 필자가 정치 의 문화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촛불 이전과 이후의 차이 때문이 연구자들이 말하듯, 문화는 삶의 다. 촛불 이전의 민중항쟁이 남성 총체다. 그러니 문화는 인간사 모 성 기반이었다면, 촛불 이후의 민 중항쟁은 여성성이 도드라져 보인 없다. 정치에도 문화가 있다. 권위 다. 전자가 '총 vs 총', '최루탄 주의 엘리트 정치문화다. 정치문화 vs 화염병'의 대립 구도 아래 폭 촛불문화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.

이제 광장의 공론장은 폭력적 대 결의 장이 아닌 문화적 공감의 장 으로 다시 태어났다. 물론, 촛불 이 전에도 위대한 광장 문화가 있었 작했다. 3·1운동을 통해 백성에서 다. 1970년대부터 본격화한 예술운 동은 이후 민족문화와 민중문화라 는 두 갈래로 뻗어나가며, 특유의 운동권 문화를 형성했다. 김지하에 서 김민기, 이애주, 홍성담, 노찾사, 그리고 꽃다지에 이르기까지. 어두 운 지하 골방에서 너른 광장에 걸 쳐 도도한 민중문화가 흘러넘쳤고, 그것은 사회변혁의 자양분으로서 찬란하게 꽃피었다. 세월이 흘러 21세기 촛불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도 광장을 주도한 것은 민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와 노래와 춤과 연주였다.

윤석열 탄핵 정국의 2030 응원봉 팔 벌려 환영한다.

부대는 세상을 뒤흔들었다. 대형기 획사의 장삿속에 맞춰진 K팝 소비 자들이 콘서트장에 들고 나타나 흔 들어대던 LED 조명이 거리를 장악 했다. 박근혜 탄핵 때 '촛불은 촛불 일 뿐, 바람 불면 꺼진다'던 김진태 의 말이 무색해진 것. 종이컵을 씌 워 조심스레 손에 들던 촛불 대신, 형형색색 응원봉이 신나는 K팝 리 등에 맞춰 현란하게 춤추는 탄핵 광장. 그것은 '아날로그×디지털, 민중문화×대중문화, 남성문화×여 성문화'로의 문화적 공진화를 보여 줬다. 특히 2030 여성들의 집중력은 여의도와 남태령과 한남동에서의 놀라운 투쟁으로 피어나 숭고의 새 지평을 열었다. 5·18을 직간접적으 로 체험한 80세대들이 '87년체제' 를 열었듯, 12·3을 경험한 2030의

신명으로 '새로 만날 세계'를 두

뉴스-in

오 지사 "도정 대전환 기조 반영해야"

더욱 신중해야 하며, 그들의 상황 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끌어내 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 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.

열린마당

생명의 존귀함을 대하는 119구급대원의 자세

다양한 나이대 환자와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첫째, 환 자와의 대화에서 눈을 마주 보며 명확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대 화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. 둘째,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환 자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, 환 실습 출동 사례 중 고령의 노인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 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뜻깊 아 환자평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 은 공부가 됐다.

이 생겼다. 환자와의 의사소통은

이번 실습 체험을 통해, 구급 대 짓, 몸짓을 병행한 질문이 보다 효 원의 역량이 단순히 응급처치에 국 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.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치료 의 시작점이며, 이는 환자의 생명 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됐다.

"기본전략에 핵심 사업 추가" 정무부교육감 임용 속도 조절

○…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정책회의에 서 도정 전반의 대전환 기조 반 영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주문.

오 지사는 "민선8기 전반기 제주 전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 꾸는 에너지·인공지능(AI)·디 지털 대전환을 선포했고 이제는 도정 각 분야에 대전환의 관점 을 반영, 가시적 성과를 확장해 나가야 할 때"라고 역설.

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서 결정해 나가겠다"라고 언급. (2040) 수립과 관련, 이를 새해 야 한다"며 "에너지 인공지능 • 디지털 대전환 정책, 푸드테크 육성 전략, 원격 협진 사업 등 실국별 핵심 사업을 기본전략 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"고 강조. 백금탁기자

○…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 육감이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(정무부교육감) 임용 관련 '속 도 조절' 입장을 재차 표명.

김 교육감은 6일 열린 도교육 청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"유보 통합 등 교육부가 추진하던 정책 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 건이 많이 변화됐다"며 "지금 시 기에 꼭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. 이어 "최상위 법정계획인 제 서두르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면

앞서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 업무계획의 기준점으로 삼아 감 도입을 위해 '지방공무원 임 용 등에 관한 조례'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의결 을 거쳤으며,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일정에 관심. 강다혜기자

발

사설

알 권리 차단 '독소조항' 삭제해야

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하고 있다. 선택적 규정이 아니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 라 강제 규정이어서 각종 심의나 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 정하는 법이다. 조례에 의해 입 안되고 집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투명하게 공개돼 도민의 알 권 리를 충족시켜야 한다.

그런데 제주도가 도민 알 권리 충족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이다. 제주도는 '각종 위원회 설 치 조례'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 고했다.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유사·중복조례를 통합해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. 문 제는 도의회가 제정한 '제주특별 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'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인용한데 있다. 회의록 공개조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 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정 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 규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.

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 는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. 도정 현안 이 생길 때마다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. 밀실행정을 조장하는 조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.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이 나 회의록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조례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.

조례는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.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 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 해 도입됐다.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 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 조항 중에는 예외조항이 있다. 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. 제주도 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의 독소 조항을 삭제해 행정의 신뢰성과

자율상권구역 지정, 원도심 활성화 기폭제

동, 일도1동 일원의 상점가들이 '자율상권구역'으로 지정된 것이 업이 전개된다.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지난달 27일 자로 최종 지정 된 제주시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은 칠성로・중앙지하상가・중앙 로 상점가가 위치한 일도1동・이 도1동·삼도2동 일원 약 12만㎡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해 칠성로 1가부터 4가 아케이 로 조사한 결과 77곳(24.8%)이 빈 것으로 나타났다. 갈수록 빈

제주시 원도심이 자율상권구역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. 으로 지정됐다. 삼도2동과 이도1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올해부 턴 자율상권조합 중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. 사업 다. 제주지역 첫 지정이다. 빠르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, 면 다음 달부터 상권 활성화 사 최대 사업비는 100억원(국비 50 억·지방비 50억)이다.

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상권 활 성화 사업은 있었다. 하지만 상 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구역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. 원도 심자율상권조합이 제시한 사업 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중소기업 다.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 기 벤처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면 준 이 일대에는 693개 점포가 사업이 추진된다. 원도심 접근 있는데, 이 중 190개가 비어 있 성 강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 는 상태다. 공실률이 27.4%다. 가 적지 않다. 상권의 자구노력 과 지자체 등의 지원이 보태지 면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는 가 드에 접한 점포 310곳을 대상으 능하다고 본다.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었던 전례를 거울삼아 야 할 것이다.

※ '오피니언'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부 卫

홍동근(빵귿대표) 아버지 남양홍공 순병 (향년 90세)께서 서기 2025년 1월 5일 09시 4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.

- ▶일 포:2025년 1월 7일(화요일) ▶ 발인일시 : **2025년 1월 8일(수요일)** 오전 6시 30분
- ▶ 발인장소 : **부민장례식장 제4빈소** ▶ 장 지:**양지공원→황사평 선영**

배우자 고창자 홍승희 민정 경희 진영

며느리 양소형 사 위 김건일 박건철 박정환 김충우 외 손 박민규

홍진웅 진유 핀치 숀 김**승**혁 민서 소형 김혜민 혜연 아형 박채준

수현 ※ 연락처 : 홍동근 010-3639-4689 김건일 010-3694-0006 박근철 010-3697-9107 박정환 010-3699-5174 김충우 010-8645-2458 홍승희 010-4107-9823

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1차)

본 회사는 2024년 12월 27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 인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

일번공관 주식회사

제주시 연동6길 5, 215호,109호,110호,111호,112호 (연동,제주1번가 더테라스) 청산인 **이 재 녕**

<u>건계분판매</u>

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

• 발효기(콤포스트)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. •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.

-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-

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:010-3119-3820,010-3692-8420

묘지후손찾기

010-4690-3636

칼라강판 조립식 건물

녹슬고 비새는 곳에

방수전문건설업

782-3644

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(주인)를 찾아드립니다 "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."

- ◆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
- ♦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지를 못찾는 경우 ◆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
- 교지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^{전문} 신소장☎010-7305-7819 제주토박이

🔅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! 확실한 6 6 광고 효과

약백도라지 분말 100% 목성콜

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

현대백화점,

농협 하나로마트,

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

판매

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/ 2009 백도라지 명인

홈페이지: http://www.baekdoraji.com

|주산지|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

-

30

한라일보 광고문의 750-2828 732-5552 서귀포지사

